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세대타락 [사사기 2:6-10]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6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8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백 십세에 죽으매 9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산 북 뫼뎃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3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호수아 24:13).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분께 감사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길 잊었습니다. 실상은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주는 것을 잊었습니다. '10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10); 불쾌하고 저주스러운 고발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시간들은 이 한 문장으로 돌아가 시작됩니다. '10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10b)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것을 믿어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지루하고 오래된 이야기. 큰 축복엔 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받은 축복에 비해 하나님께 드릴 헌신과 봉사의 측면에서 그들은 아주 사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의 축복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모든 일상의 대화에서 누가 가장 먼저 언급됩니까?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이전세대를 통해 다음세대로 전해집니다.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찌니라' (신명기 6:4-9). 걷든지, 이야기하던지, 앉든지, 일어서든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성경책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말씀을 먹고 그것으로 숨 쉬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모범을 보이십시오. 다음 세대가 타락하지 않도록 이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다음세대가 타락하기보단 오히려 여호와를 알고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1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찌어다 2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3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4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6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7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8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 78:1-8).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고 아이들과

믿음의 삶을 함께 걷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삶의 순간순간들을 숨 쉴 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되물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유혹들을 제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진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가 우리들을 점령하고 우리 삶을 혼돈 속에 빠뜨리며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서로 짐을 나누고, 교회를 마음 다해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존하기 급급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세대도 하나님의 사역 모두를 완성할 순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이전 세대가 쌓아 놓은 바탕 위에 쌓아 올린 것들입니다. **또한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들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선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삶, 건강 그리고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엉망이었지만 그들에게 진노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 분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적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군림하게 했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사들은 가장 위대한 사사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구원자,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계신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사들을 통해 이 승리가 주님의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와 우리 삶의 초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 분은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진실하십니다!